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새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활동

-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활성화는 교회의 내적 성장의 초석 -

새 봄이 되면서 다락방과 전도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다락방과 전도회의 모임은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다락방 모임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의 내적인 부흥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총 12개 교구에 131개의 다락방과 16개의 남선교회, 17개의 여전도회가 있다.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교회는 성도들간의 교제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전도회 활동이나 다락방 모임 등 소규모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온전케 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엡4:11, 12)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체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무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락방이다. 따라서 다락방 활동을 통해 성도 개개인이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락방장은 작은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리더십을 개발하며 양육을 위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락방장들은 각 가정이나 성도 개인, 지역 사회의 요구가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수렴된 의견이 교회의 정책이나 목회의 방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때마다 연락체계는 다락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조사와 특히 연약한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다락방장은 다락방 회원들과의 유대를 긴밀하게 해야 하며 수요 I, II부 예배 후에 갖는 다락방장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회의 일을 성도에게, 성도 개개인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는 일에 협력하도록 한다. 또한 다락방 모임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회와 성도간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별히 새가족에게는 다락방 모임이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됨을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 다락방 회원들간의 지나치게 친숙한 분위기 때문에 새로오는 사람에게 배타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롬14:1-2, 15:1).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100교회 운동」으로 모든 재정의 60% 이상을 전도와 선교, 구제 등에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선교교회와 전도회의 활동도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과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할 때, 사업

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모임 때마다 더욱 힘써서 말씀과 기도에 착념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친교가 아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로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삶 속에서 천국을 실현해 가는 일을 서로 격려하며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많은 부분이 안정되어가고 있는 차제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다락방 모임이나 전도회의 활동과 같이 소규모의 모임을 통해 견고해 지며 교회의 내적성장의 초석이 다져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5 상반기 장학생 선발

오늘 찬양 예배 시 장학금 전달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이남호 장로)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특별히 올 상반기부터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 내 장학생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각각 42명씩 선발하였다. 따라서 84명에게 총 2천 4백 15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선발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신학생)

박종상 김성호 박경민 권오철 이주은
권재현 박상훈 송인선 노대희 원영선
오은경 최 율 김경숙 임혜경 나소영
최혜진 (16명)

고등학생

박경원 안상미 양지원 고은혜 황종훈
김혜숙 허민환 박성희 신천규 주미영
유인욱 길수현 김혜영 정희진 서현아
(15명)

중학생 /

김은정 김윤정 김중화 백 훈 김상호
유명진 김은정 이 현 임인섭 임만석
주정주 (11명)

*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

대학생 (신학생)

김은실 김은화 김창식 김유진 노선욱
박충성 구은광 송명중 송은아 심에스터
유요한 이성결 이종순 진준봉
(14명)

고등학생 /

정소영 엄지영 김 면 김 관 이나비
이신자 안애림 정진경 정효경 심요한
오소영 김광석 이승훈 최 용 이경신
(15명)

중학생 /

김 류 남기명 심어진 오빛나 오신영
유안나 이사라 안인국 박영선 이재천
정지영 최다윗 최 현 (13명)

창세기 강해



약속의 아들 이삭

(21장 1 ~ 7절)

이종운 목사

웃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선물입니다. 인간의 웃음에는 비웃음같은 부정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웃음은 감사와 기쁨과 승리로 인해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의 비웃었습니다(창18:12).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6절).

기도도 하고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믿기는 믿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감격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 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도다”(시126:1, 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좋아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얻은 것이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욱 기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보이셨습니다(1-2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낳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젖을 먹여 양육할 힘까지 주셨습니다(7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일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도, 시간도, 환경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을 줄 안

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매맞고, 가족을 잃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참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연고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믿을 때에 고난과 역경을 단 마음으로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한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2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창12:1, 15:4)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창3:15, 사7:14).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출생들입니다. 또한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시간이 흐른 것도 공통적입니다. 이삭의 예언은 25년만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오심은 수천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늙어서 아이 낳을 힘이 없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보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사이에는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창17:19, 마1:21).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3. 새생명의 출생

여인으로서 사라의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엡2:1).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전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새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고전1:28).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친한 우리들을 들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자랑치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4:23, 24).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산고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기 전 댓돌 위에 놓여진 자기 고무신을 다시 한 번 바라다보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정녕 아기를 순산하고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문지방이 흐늘거리고 대들보가 내려앉은 산통을 거쳐야만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다.

이 땅에서 공의가 두꺼운 얼음을 깨치고 움터 오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잉태된 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탄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울던 엄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자랑이 될 진리의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같은 큰 희망을 품은 자마다 오래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다락방 모임을 마치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 계 홍 (집사, 5교구)

지 구촌 곳곳에서 들리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웃 나라의 지진 소식과 극심한 가뭄 등으로 더없이 지리하기만 했던 겨울을 접으며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3월을 맞이하면서 지난 2일 제 5교구에 속한 남현, 과천, 안양, 산본, 평촌, 군포 다락방이 연합모임을 가졌다.

30명 쯤 모이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다락방원의 90%가 넘는 6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쓰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변화된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모인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따라 일일이 기도하던 일이다. 기도의 제목을 통해 각 사람의 처지와 필요를 알 수 있었으며 진정한 교제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다. 20분 이 넘는 뜨거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

님과 이웃을 향하여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식탁의 교제’는 각 다락방에서 한가지씩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절제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소박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준비한 음식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였다. 준비한 성도들도, 나

누는 성도들도 부담없이 즐기던 사랑과 절제가 조화를 이룬 식탁이었다.

성경도, 배경도, 시는 모습도 모두 달랐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 것과 봉사로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것에는 모두 한마음이였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다락방을 통해 성도들 개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서로 격려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 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국은 봄기운이 한창일 테지요. 환절기일텐데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원일이 워낙 많다보니 제 처소로 돌아오면 아무 것도 할 힘이 남지 않은 채 그냥 쓰러져 버릴 때가 많지만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용원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을 내어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까지 보내주시는 <순례자>와 주보를 받아보며 사랑의 빛진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 장의 날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빠짐없이 읽으며 얼마나 큰 힘과 격려를 받는지요.

이곳은 전기입니다. 음식은 부족하고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 먼지로 인한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5~6명의 중증의 소아 환자가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에이즈 감염율이 60%이상인 이곳에서 사전에 검사도 없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헌혈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갈등과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번민 속에서 주님은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사랑의 간호를 한 후에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제 힘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임 정 미 (의료선교사)

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줄 사랑도 없으며 제가 가진 기술만으로는 이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처음 아프리카의 한 모퉁이 이곳 클루바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가슴 벅찬 눈물이 앞을 가렸던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선교는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절망이나 낙심이 되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며, 제 연약한 모습을 내려 놓고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문화와 인종이 다 다르지만 인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좀더 포용하며 섬길 수 있는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닮게 되기를 구합니다.

11월 29일부터 코보코(Koboko)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부족별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형제들이 아무런 혐의없이, 혹은 돈이 없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이들의 상한 마음

을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300여 명의 채소자들이 저희 전도팀을 보면, 우루루 몰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보다 더한 죄인인 제 자신의 모습과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신 자유를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가슴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희미한 램프 밑에서 가졌던 주님과의 훈훈한 대화가 오후에는 병원에서의 간호와 땀 흘리는 보람과 충족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고, 이 저무는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함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95. 2. 8.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3월 11일(토)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주관

우리교회는 군복음화에 기여하고자 1993년부터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여왔다.

올해도 3월11일 (토요일)오후 2시 육사교회에서 거행될 예배와 이중윤 목사의 집례로 거행될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다과회 순서까지 모두 우리교회가 주관한다.

이 세례식에 참여할 성도들을당일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호진 박사 협동목사로 청빙

당회는 전호진 박사를 협동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다. 전 목사는 3월 넷째 주일부터 소망부를 지도하게 된다.

전 목사는 고신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홀러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선교학 박사이다. 피어선 신학대 학장, 고신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제6차 킷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④

강사 확정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모슬렘권 목회자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할 이번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강의제목및 강사진이 확정되었다.

- 개강예배 “세계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 - 이중윤 (서울교회 목사)
- 강의 ① “한국 교회사 개요” - 언더우드 (연세대 명예교수)
- 강의 ② “교회개신과 성장의 성경적 원리” - 이중윤 (서울교회 목사)
- 강의 ③ “전도와 사회적 관심” - 이윤구 (선명회 회장)
- 강의 ④ “한국 교회의 기도생활” - 손영준 (MTI 원장)
- 강의 ⑤ “신학교육과 교회 성장” - 조종남 (전 서울신학대 학장)
- 강의 ⑥ “평신도 전도운동” - 킷슬러 (미국 장로교 선교사)
- 강의 ⑦ “교회성장을 위한 다락방 운동” -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목사)
- 강의 ⑧ “모슬렘권 전도전략” - 전재욱 (이화여대 교수)
- 강의 ⑨ “교회개신과 성장의 실제 - 총결론” - 이중윤(서울교회 목사)

* 강의를 맡은 강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킷치 신학세미나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언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모든 참가자들이 강의와 토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자국 복음화 전략회의(National Strateg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보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농어촌 100교회 지원』 올해 후원자 자매결연 마감

- '96년도 후원자는 계속 받기로 -

전도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에서는 「100교회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올해의 후원자 접수를 2월 말로 마감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교회를 일년 단위로 후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후원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교회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므로 '96년도 지원교회를 위한 후원 신청은 계속 접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확정된 106개 농어촌 교회와의 결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

학원선교회 - 순결서약식 확대기로

학원복음화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는 학원선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총회를 갖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순결서약식을 확대해 가는 일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차량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원주차장과 초당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오늘부터 대원주차장과 초당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은 **대남빌딩 주차장, 제일은행 주차장, 중소기업은행 주차장, 한일증권 주차장, 삼성가전 주차장, 보림은행 주차장, 교회 주차장**입니다. 주차하시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하는 일이 좀더 어려워져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교회 앞과 지하 주차장은 **새가족과 장애인에게 양보**하고 차량관리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단이나 건물에 있는 곳에서는 **정면주차**하여 건물이나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주차 시간을 고려하여 예배에 늦지 않도록 집에서 **10분씩만 일찍 출발**합니다.

* 특별히 주일에 종일 교회에 계시는 분은 길 건너편에 있는 **대남빌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량관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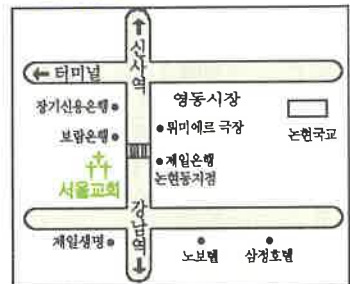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락방 모임과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활동을 위하여
2.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장학회의 사업을 위하여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하여
4.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강사들을 위하여
5. 해외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